

# TV 토크쇼에서 나타나는 진행자의 담화 전략 분석: 민감한 질문하기를 중심으로\*

서경희 · 오나연 · 오영림

## 차 례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 IV. 진행자의 질문 전략
- V. 결론 및 논의

## I. 서론

오늘 날 TV 방송에서 빠질 수 없는 프로그램의 형식 중 하나는 토크쇼이다. 현재 미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토크쇼는 800편이 넘으며 한국에서도 토크쇼는 다수의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TV 장르 중 하나이다. 토크쇼들은 각기 다양한 형식들을 통해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 경우에 따라 토크쇼에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는 식의 — 일상 대화와는 매우 다른 방식의 — 담화가 발생하기도 하며, 동시에 친구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자와 초대 손님이 단순한 ‘수다’를 떠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일상 대화와 차이가 없을 것 같은 토크쇼에도 일상 대화와는 구분되는 제약들이 부여되며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제약들이 토크

---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본 연구는 2014년 봄 담화인지언어학회 사회언어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고 발전시킨 논문임.

쇼를 완전한 일상 대화가 아닌 반(半)제도적 담화로 만든다. Ilie(1999) 연구는 토크쇼가 가진 반(半)제도적 담화의 특징을 잘 정리하고 있다. 토크쇼는 다른 제도적 담화와 마찬가지로 TV 스튜디오라는 특정 제도적 세팅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며 청중 지향적인 면을 가진다. 반면 일상 대화와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담화 주제에 대한 통제가 다른 제도적 담화에 비해 비교적 약하며 대화 참여자들이 비(非)제도적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동일한 발화권(speaking rights)을 가지며 일정 부분 대화 참여자 지향적인 대화도 나타난다.

담화 분석에서 질문은 중요한 연구 분야들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제도적 담화에서 나타나는 질문에 관한 연구는 제도적 담화 연구에서 중심이 되어왔다(Ilie, 1999; Glucksberg and McCloskey 1981; Singer 1990; Gregori-Signes 2000; Clayman and Heritage 2002; Haddington 2004; Freed and Ehrlich 2010; Stivers 2010). 질문이 하는 역할에 대해 진행된 수많은 연구들(Boyd & Heritage, 2006; Clayman & Heritage, 2002; Heritage, 2004, 2010)은 질문이 단순한 정보를 탐색하는 목적 외에 담화 전반을 통제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혀왔다. 또한 일상 대화보다 제도적 담화들이 주제를 통제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문을 통한 담화의 통제는 일상적인 대화보다 제도적인 담화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된다.

최근 들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제도적 담화들 중 하나인 TV 토크쇼를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출연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담화유형이 아니다. 이들의 대화가 지향하고 고려하는 제 3자인 시청자가 사실상 토크쇼의 중심에 선다. 토크쇼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청률이라는 인기의 척도를 무시할 수 없다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토크쇼가 전달하는 정보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대화 참여자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드러내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정보일지라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충분히 토크쇼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진행되는 토크쇼에서 시청자들을 대변하여 초대 손님과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토크쇼의 진행자와 초대 손님은 동일한 선상에 위치해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상 대화에서는 A의 질문에 B가 응답하고 이후에 B가 A에

게 다시 질문을 하는 식으로 대화 참여자들이 끊임없이 질문자와 응답자의 역할을 주고받는 상황이 왕왕 나타난다. 그러나 토크쇼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대화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 이유는 대화 참여자들은 진행자(질문자)와 초대 손님(응답자)이라는 특정 역할을 맡도록 설정되기 때문이다. 진행자는 초대 손님으로부터 정보를 이끌어내고 대화의 방향을 시청자들이 원하는 식으로 이끌어가는 목표를 가지며, 동시에 자신은 시청자와 초대 손님 사이에 중립적 매개체로서 존재하려 한다. 또한 초대 손님은 진행자의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는 의무와 동시에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토크쇼 담화는 주로 진행자가 질문을 하고 초대 손님이 이에 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들 간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토크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 중 다른 하나는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이다. 여기에서 인포테인먼트라 함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유지하기 위해 초대 손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Penz 1996). 진행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화의 주제를 통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주제는 사실상 초대 손님이 회피할 가능성이 큰 주제이고 진행자가 직접적으로 주제를 언급할 경우 원하는 정보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진행자는 해당 주제를 시작하기 위해 다른 주제를 시작할 때 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질문 전략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인포테인먼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통해 초대 손님으로부터 정보를 이끌어내며 또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한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부분이다(Ervin-Tripp et al. 1984:117; Penz 1996:12; Crawford 1995:18; Fowler 1985:61, Tolson 2006:149-166).

본 연구에서는 토크쇼에 나타나는 질문 중에서도 사생활, 스캔들과 관련된 이야기, 초대 손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견해, 초대 손님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감한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질문자가 어떠한 질문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선행 연구

토크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진행자가 사용하는 질문 유형을 분류하거나 진행자의 질문이 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Ilie, 1999; Glucksberg and McCloskey 1981; Singer 1990; Gregori-Signes 2000; Clayman and Heritage 2002; Haddington 2004; Freed and Ehrlich 2010; Heritage and Clayman 2010, Stivers 2010).

Haddington(2004)은 이러한 질문의 유형 분류에서 앞서 뉴스 인터뷰라는 제도적 담화에서 ‘입장(stance)’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뉴스 인터뷰 대화에서 화자들 사이에 ‘입장 취하기(stance-taking)’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입장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입장 취하기를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화자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입장을 구성하고 표출하며 이를 서로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상호적 주관성(intersubjectivity)이 포함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Du Bois (2002, 2004)는 입장 취하기가 화자 1, 화자 2, 대화 주제(Subject1, Subject2 and Object)라는 3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입장 취하기는 먼저 화자 1이 대화 주제에 대한 입장을 표출하며 해당 주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화자 1의 입장 취하기 행위를 통해 대화가 본인이 목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정한다는 것이다.<sup>1)</sup> 이후 화자 2는 이미 화자 1이 입장을 취한(또는 평가를 내린) 주제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토크쇼라는 제도적 담화에서 발생할 경우 화자 2인 초대 손님은 해당 주제가 회피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일상 대화와 달리 일방적으로 응답을 거부하거나 주제를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자 1이 취한 입장을 고려하여 자신의 입장이나 평가를 제시하게 된다.<sup>2)</sup> 즉 앞서 언급된 두 연구의 주장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입장 취하기는 일방적이고 주관적

1) 이러한 입장을 취한 발화는 전방형 상호주관성(forward-type inter-subjectivity)을 지니고 있다고 정의된다(Haddington 2004).

2) 이렇게 바로 이전의 발화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반영한 발화를 후방형 상호주관성(backward-type inter-subjectivity)라고 정의하였다.

인 과정이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발생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어서 진행자의 질문 유형에 대한 분류를 제시한 연구를 살펴보면, Clayman and Heritage(2002)는 질문자의 질문을 다시 단순 질문(simple question)과 서문이 있는 질문(prefaced question)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단순 질문’은 질문자의 해당 말차례에 다른 별도의 말차례 요소들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되는 질문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 인터뷰를 살펴보면 질문자는 단순 질문 이외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질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진행자/질문자는 단편적으로 궁금한 점을 묻는 단순 질문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세련되고 정교하게 구상된 질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를 ‘서문이 있는 질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서문이 있는 질문’으로 분류되는 질문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본래 질문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언급들을 사용하여, 해당 요소들이 하나의 커다란 주제를 향한 흐름을 향해 가는 복잡한 형태를 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진행자는 특정 안건을 설정하거나, 질문이나 발언에 전제를 내포하거나 또는 특정 측면에 대한 선호도를 내비침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 가거나 적어도 그러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이후 많은 연구들은 토크쇼에서 서문이 있는 질문과 같이, 진행자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구상하고 활용하는 질문들에 나타나는 전략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뉴스 인터뷰에서 나타난 진행자의 질문 구상을 다룬 Heritage and Clayman(2010)의 연구에서는, 진행자가 토크쇼에서 언론인으로서 편중되지 않은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중립성’(objectivity)과 대중을 대신한 감시자로서 때로는 초대 손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대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대립성’(adversarialness)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반된 기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진행자는 다양한 질문 전략을 통해 초대 손님을 공격하는 동시에 자신의 중립성을 지키려 한다. 진행자는 질문을 통한 주제 선정, 전제를 활용한 질문, 질문의 선호 구조 등을 활용하여 초대 손님을 공격하고 이를 통해 ‘대립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한다. 또한 진행자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2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초대 손님에게 이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는 ‘갈림길

(fork) 질문’(Heritage and Clayman 2010: 238)이나 초대 손님의 응답에 나타난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대립성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중립성에 있어서는, 진행자의 질문이 초대 손님을 비난하는 내용일 경우 서문이 있는 질문을 사용해 자신의 질문의 정당성을 표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부정에서 긍정, 또는 부정에서 중립적으로 바꾸는 입장 전환(footing-shift)을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진행자가 이러한 전략들을 반드시 하나씩 골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1) [Meet the Press: December 1985] (Heritage and Clayman, 2010:239)
- 1 IR: Senator (0.5) uh President Reagan’s elected thirteen months  
2 ago: an enormous landslide.  
3 (0.8)
- 4 IR: It is s::aid that his programs are in trouble, though he seems  
5 to be terribly popular with the American people.  
6 (0.6)
- 7 IR: It is said by some people at thuh White House we could get  
8 those programs through:: if only we ha:d perhaps more: .hh  
9 uhfffective leadership upon thuh hill an’ I [suppose]
- 10 (IE): [hhhheh ]
- 11 IR: indirec’ly that might ( ) relate t’you as well:.  
12 ( )
- 13 IR: Uh whaddyou think thuh problem is rilly.
- 14 F → Is it (0.2) thuhleadership as it might be claimed up on thuh hill,  
15 F → er is it thuh programs themselves.

(1)에 제시된 예문을 살펴보면, 진행자는 1-2 열에서 서문을 사용하여 정당성을 확보한 후, 4열과 7열에서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입장 전환이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다시 13-15열에서 갈림길 질문을 사용한다. 이처럼 진행자는 초대 손님으로부터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질문 전략들을 혼용하여 더욱 복잡한 구조의 질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Lee(2014)는 국내 토크쇼인 ‘무릎팍 도사’를 중심으로 진행자가 민감한 질

문을 할 때 사용하는 질문 전략을 분석하였다. 진행자가 제 3자 인용/전문(傳聞)을 질문에 포함시키거나 보이지 않는 TV 청중을 대신한 질문 전략들을 사용하여 초대 손님에 대한 소문이나 민감한 개인적인 정보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TV 토크쇼 데이터를 토대로 진행자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질문을 할 때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질문 전후 연속체(sequence)까지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질문들은 진행자가 초대 손님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질문으로, 토크쇼 인터뷰 중에서도 응답자가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이 큰 질문과 관련된 주제를 시작할 경우 진행자는 단순 질문보다는 서문이 있는 질문 등 다양한 질문 전략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주제의 시작부터 초대 손님으로부터 진행자가 원하는 응답이 나오기까지의 대화 쌍들을 질문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에 따라 화자들이 어떠한 식으로 ‘입장 취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 III.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미국의 3대 방송사 중 하나인 민영 공중파 방송사 CBS를 포함한 미디어 대기업 CBS 코퍼레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tv닷컴(TV.com)에 따르면 현재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토크쇼는 837편에 달한다. 그 많은 숫자만큼이나 형식과 주제도 다양하며, 설정된 형식에 따라 나타나는 대화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대중가수, 유명 정치인, 영화배우 등 초대 손님이 대중에게 익숙하거나 잘 알려진 인물이며 진행자가 초대 손님과의 일상 대화의 형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토크쇼로 통일하였다.

연구를 위해 6개의 토크쇼, 총 34편의 방영본에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부분을 선별하여 전사한 후, 총 5회에 걸친 상호 검토와 수정 과정<sup>3)</sup>을 거쳐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대상이 된 6개의 토크쇼는 미국에서 방영 중인 텔레비전 토크쇼인 데이비드 레터맨의 레이트 쇼(David Letterman's Late Show), 엘렌

3) 모든 전사 작업은 미국 원어민의 교정을 거쳤다.

드제너러스 쇼(The Ellen DeGeneres Show), 라이브 위드 켈리(Live! with Kelly), 더 뷰(The View), 인사이드 더 액터즈 스튜디오(Inside the Actors Studio), 더 투나잇 쇼(The Tonight Show)의 방영분이다.<sup>4)</sup>

Clayman and Heritage(2002)에 의하면 토크쇼에서의 질문은 단순히 일 회에 그치지 않고 진행자의 질문-초대 손님의 대답-진행자의 질문-초대 손님의 대답이라는 연속적인 패턴을 따른다. 즉, 질문행위를 질문-대답을 하는 일련의 연속체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인 진행자의 특정 질문 한 문장만이 아니라 해당 질문이 나오기까지 선행 대화 및 후속 대화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토크쇼에 나타나는 질문-대답 연속체의 양상을 포함하여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질문 전략 뿐 만 아니라 포괄적인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략까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이 된 질문에는 의문문의 형식을 갖춘 질문 뿐 만 아니라 토크쇼의 맥락상 질문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상대에게 추가 정보나 행동을 요구하는 형태(이전의 질문에 대해 초대 손님이 응답을 회피했을 때 추가적으로 주제를 이어가는 경우 등)까지가 포함되었다. 이는 기존 질문에 관련된 연구들(e.g. Heritage 2010)에서 밝혔듯이 정보량의 불균형(epistemic asymmetry)이 질문-대답의 연속체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질문은 정보량이 적은 사람이 정보량이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토크쇼라는 제도적 담화에서도, 진행자는 초대 손님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려는 정보 탐색(information seeking)의 과정에 있으며 초대 손님은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진행자-초대 손님의 대화는 표면적으로 질문의 형식을 띄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질문-대답의 연속체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Hayano(2012)에서도 질문을 규정하는 조건에는 문법적인 의문문의 형식뿐만 아니라 운율(prosody)과 정보량의 불균형도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 중에서도 정보량의 불균형에 의한 질문을 살펴보면, A와 B의 대화에서 A가 발화한 주제가 B에 관한 사건(B-event)으로서 주제에 대한 정보량이 상대방인 B에게 더 많을 경우에는 굳이 발화가 질문 형식을 띄고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4) 분석 대상이 된 토크쇼의 정보는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질문-응답 형식을 띄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법적으로 분류되는 질문 뿐 만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에 따라 질문으로 분류되는 것까지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따라서 진행자가 초대 손님과 관련된 주제를 언급하는 경우 이는 초대 손님에게 확인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목적을 가진 질문으로 간주한다.

## IV. 진행자의 질문 전략

앞서 3장에서 언급된 방식을 통해 수집된 총 34편의 토크쇼를 분석한 결과, 진행자가 초대 손님으로부터 특정한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민감한 질문을 할 때 사용한 질문들 중 반복적으로 나타난 질문의 유형들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제 3자의 진술인용, 2. 전제가 포함된 질문, 3. 모호한 표현 사용, 4. 주제 좁혀나가기.

### 1. 제 3자의 진술인용

토크쇼에서 진행자는 초대 손님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때로는 민감한 성격의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진행자가 이러한 민감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초대 손님으로부터 이끌어내려는 질문 전략 중의 하나로서 자신의 질문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전방형 상호주관성이 나타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토크쇼들에서는 진행자가 제 3자의 말을 인용하거나 자신이 대중을 대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질문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다. 앞서 Haddington(2004)의 연구에서도 서문이 있는 질문 중 진행자가 제 3자가 진술했다고 제시하는 내용(third-party attributed statements)을 질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소개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진행자가 초대 손님에게 질문을 던지며 주제가 시작되는 토크쇼의 형식상, 표면적으로는 진행자가 해당 질문을 직접 물어보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

지만 제 3자의 진술인용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호적 기능은 진행자가 해당 주제 및 초대 손님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Haddington 2004; Clayman and Heritage 2002). Lee(2014)에서도 진행자가 제 3자의 말이나 익명의 제보를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진행자가 직간접적으로 전문을 사용함으로써 까다로운 주제와 관련된 질문 행위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과정을 보고하였다. 진행자는 곤란하거나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제 3자의 말을 인용하거나 대중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그러한 질문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닌 중립적이며 공적인 목적에 의한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해당 질문은 단순한 진행자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중의 관심 사항, 대중들에 의해 이미 이야기되는 사실이 되며 따라서 초대 손님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할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즉, 제 3자 인용은 질문에 대한 책임의 근원이 제 3자에게 있음을 밝힘으로써 진행자의 책임을 줄이고 질문을 중립적으로 만들며, 대중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변한다는 명목을 통해 진행자의 질문에 힘을 실어준다.

(2)에 제시된 대화는 CBS에서 방영된 더 레이트 쇼(The Late Show)에서 진행자 데이비드 레터맨(David Letterman)이 초대 손님인 엠마 스톤(Emma Stone)을 인터뷰하면서 나는 대화 내용이다. 다음의 대화에서 진행자는 초대 손님과 다른 배우(앤드류 가필드; Andrew Garfield)의 열애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2) The Late Show

진행자(H): 데이비드 레터맨, 초대 손님(G): 엠마 스톤

H: And he doesn't know it, and then, and then there's a romance between a... have you ever dated a Spiderman?

G: (just looking up the ceiling)

H: Now, now the horn section, now this question doesn't apply. (chuckles)  
For the love of God.

G: Then yes. Yes I have.

H: → **But somebody told me** that in addition to dating the Spiderman in the

- movie... there may be real life overlap there.
- G: (distracting the question) The horn section told you?
- H: (while laughing) Yes. The horn section told me. That's right. They said. They said we think there might be some real life overlap. The horn,
- G: Have, have you heard that we're having a clam bake?
- H: Now, how do you guys know this? Have you been to a clam bake?
- G: Have you? They've been to a clam bake. This is, you guys are the best.
- H: Oh, my God.
- G: Just the best.
- H: I feel like I've been traveling the world. Uh... Let's a, a, do you know the scene we are gonna see here?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행자는 초대 손님에 대한 소문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해줬는데(somebody told me)’라고 제 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의 취함으로써 해당 소문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진행자의 책임감을 줄이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행자의 이와 같은 발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고 이미 관련 주제가 대중들에게 논의되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이 경우 진행자는 자신은 단지 제시된 소문을 전달하는 사람일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초대 손님의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 후속맥락에서 초대 손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진행자에게 해당사실을 부정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소문의 진원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초대 손님은 (2)에서 제시된 대화 이전에 논의되던 주제인 해산물 파티(clam bake)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주제를 전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행자는 ‘이제, 어, 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될지 알고 있나요’(Let's a, a, do you know the scene we are gonna see here?)라며 다음 대화 주제로 넘어가고 있다.

아래 (3)에 제시된 대화는 1999년 미 CBS에서 방영된 데이비드 레터맨(David Letterman)이 진행하는 더 레이트 쇼(The Late Show)에 초대 손님으로 참석한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당시 초대 손님의 아버지가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존 보이트(John Voight)임이 밝혀지

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진행자는 초대 손님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해당 주제를 시작하고 있다.

(3) The Late Show

진행자(H): 데이비드 레터맨, 초대 손님(G): 안젤리나 졸리

H: You're... a, you smell great, you smell nice. That's a, that's a lovely fragrance. You smell good, I appreciate that.

G: Anything I can do.

H: → Yeah, It's nice. Ah, **do, do people generally know** that you're from a... show business, ah, theatrical, motion picture family... your father is Jon Voight? **Do people know, know that, generally?**

G: Yeah.

H: Yeah?

G: I mean, you know...

위의 대화 지문을 살펴보면 진행자는 초대 손님과 그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진행자는 자신이 질문할 내용에 대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진행자가 '사람들도 알고 있는가'(...do people generally know...)라고 질문을 시작함으로써, 진행자 자신이 해당 내용을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관련 내용을 대중들이 알아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진행자는 질문에 일반적인 대중이라는 제 3자를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질문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전제가 포함된 질문

토크쇼에서 진행자는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면서 전제를 이용한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sup>5)</sup> Heritage and Clayman (2002,

5) 전제(presupposition)란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또는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메리의 강아지는 귀엽다'라는 문장은 '메리는 강아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비슷한 예

2010)에서도 질문은 본질적으로 전제를 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Hayano(2012)에서는 전제가 담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답변 자체의 내용과 상관없이 전제를 수용하게 되므로 응답자가 전제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작업(interactional work)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이미 질문 자체에 특정 정보를 전제로서 내포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응답할 경우에는 그 전제로 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토크쇼에서는 진행자가 초대 손님에게 다소 난감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거나 초대 손님을 공격하고자 할 경우, 실제 묻거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 하고자 하는 말을 전제로 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이 묻고자 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시사한다. 즉, 화자는 전제가 담긴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제를 사용한 질문은 대립적인 내용(confrontational message)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된 대화에서는 진행자가 전제를 이용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초대 손님은 해당 질문 자체에 대한 응답이 아닌 전제를 부정하는 식의 응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는 NBC에서 방영된 엘렌 드제너러스 쇼(The Ellen DeGeneres Show)에서 진행자 엘렌 드제너러스가 초대 손님인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 배우인 잭 에프론(Zac Efron)과의 열애설 내용을 확인하고자 해당 주제를 시작하는 내용이다.

#### (4) Taylor Swift with The Ellen DeGeneres Show

진행자(H): 엘렌 드제너러스, 초대 손님(G): 테일러 스위프트

H: → I'm so happy to see you. Every time you're here you make me very happy. You were here with your boyfriend Zac Efron last time, how's he doing?

G: Um... We actually never dated.

H: Yes, you did. So when you, when y'all were here, but obviously late nights y'all were spending together. Y'all wrote that song for me. And

---

로 '그가 언제 떠났나요?'라는 질문은 '그가 떠났음'을 전제로 한다(Yule 1996: 26-30).

then you sang it, we, we should show people, okay?

G: Yes. This was a highlight of my life.

첫 번째 질문인 ‘지난번에 당신의 남자친구인 잭 애프론(your boyfriend Zac Efron)과 이곳에 왔었죠. 그는 어떻게 지내요?’(You were here with your boyfriend Zac Efron last time. How’s he doing?)에서 진행자가 잭 애프론을 ‘당신의 남자친구인 잭 애프론’(your boyfriend Zac Efron)이라고 말함으로써 해당 질문은 이미 초대 손님에게 잭 애프론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음을 전제하며 진행된다. 이에 대한 초대 손님의 응답을 살펴보면 표면적인 질문인 ‘그는 어떻게 지내나요’(How’s he doing)?에 대한 대답 대신 ‘사실 우리는 사귄 적이 없어요’(We actually never dated)라고 질문에 담긴 전제를 부정하고 있다.

(5) Taylor Swift with The Ellen DeGeneres Show

진행자(H): 엘렌 드제너러스, 초대 손님(G): 테일러 스위프트

H: How’s he doing?

G: I don’t know. I haven’t talked to him in a while... Because we didn’t... a, date.

H: Yes, you did. Why do you deny it?

G: Cause we didn’t.

H: Oh... Okay... So...

(Audience laugh)

H: All right, you. Ok, so let’s just talk about the new CD then.

(Audience applause)

H: There’s a lot of songs...

(Audience applause again)

H: → Which song is about Zac on the new CD?

G: Um... there’s nothing really about Zac on the CD... Cause we didn’t, we didn’t date.

H: All right...

G: So,

H: (hand gesture meaning “crazy”) OK.

(5)는 (4) 이후에 진행된 대화 내용으로서, 초대 손님은 계속 해당 전제를 부정하지만 진행자는 ‘맞아요, 당신은 (그와 데이트) 했어요. 왜 그걸 부정하는 거죠?’(Yes, you did. Why do you deny it?)라며 오히려 전제를 부정하는 초대 손님을 공격하고 있다. 이후 진행자는 ‘좋아요, 이제 새로운 앨범 이야기를 해보죠’(Ok, so let’s talk about the new CD then)라며 화제를 바꾸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국 진행자가 알아내고 싶어 하는 내용을 묻는 질문인 ‘새로운 앨범에 있는 곡들 중 어떤 곡이 잭에 대한 것이죠’(Which song is about Zac on the new CD?)라고 말함으로써, 이미 초대 손님이 발표한 새로운 곡들 중 잭에 대한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며 잭과 테일러 두 사람이 특별한 사이 일 것이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제를 사용하는 질문들에 대한 초대 손님의 답변을 살펴보면 표면상의 질문이 아닌 전제된 내용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6)은 2012년 3월 12일 NBC에서 방영된 엘렌 드제너러스 쇼(The Ellen DeGeneres Show)에서 진행자인 엘렌 드제너러스와 초대 손님으로 나온 제시카 심슨(Jessica Simpson)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진행자는 만약 초대 손님이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나온 것을 보고 이를 지적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6) The Ellen DeGeneres Show

진행자(H): 엘렌 드제너러스, 초대 손님(G): 제시카 심슨

H: Oh, my God!

G: I know!

H: Alright, have a seat.

G: Thank you. And I’m like, in 8 inch heels.

H: Well, I know. That’s what I was looking at.

G: I, I should be ticketed for that, you know?

H: I, yeah, really. I was gonna say something about that. And they’re not just heels but they’re like narrower than...

G: Yeah.

H: ... your foot itself.

G: I’m like walking out like a geisha (giggles hysterically at her own wit).

- H: Yeah. Well, they, a... well, anyway. That's your choice to wear those.  
But (glottal grunts) that's crazy. I have some things...
- G: It's..it's is all for fashion for the show.

(중략)

- H: And...
- G: It's gonna be hard.
- H: → And I have to say the, the heels, I, I was gonna say something when you walked out, Um... **when you**, (glottal grunts), **at what point do you stop wearing these?** Like literally, like?
- G: I am in, I am in flip-flops now.
- H: And look how tiny that part is!
- G: I know,
- H: Like...
- G: It's not safe. It's all for the sake of fashion.

진행자는 해당 주제를 시작하면서 ‘내가 뭔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I was gonna say something)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해당 주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을 내비치며 질문의 당위성을 확보한다. 주제가 시작된 이후 진행자는 ‘이, 이것은 모두 쇼의 패션을 위해서예요’(It's..it's is all for fashion for the show)라는 초대 손님의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내가 이 이야기는 해야겠다’(I have to say)라며 해당 주제를 다시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신발은 언제 그만 신을 예정 인가요?’(at what point do you stop wearing these?)라는 질문을 던진다. 해당 질문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의문사 의문문(Wh-question)에서 하고 있는 통사적 전제와 ‘stop’이 가지고 있는 어휘적 전제가 있다. 어휘적 전제를 먼저 살펴보면, ‘멈추다’(stop)라는 단어는 이미 그 행동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전제하게 된다. 또한 의문사 의문문이 사용하는 전제의 관점에서 진행자가 ‘그런 신발을 그만 신을 거지요?’라는 일반 의문문의 형식 대신에 ‘그런 신발은 언제 그만 신을 예정 인가요?’(at what point do you stop wearing these?)라고 질문함으로



서 ‘그런 신발을 언젠가는 그만 신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며, 해당 전제된 사실이 실제로 진행자가 초대 손님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 된다. 또한 전제를 이용한 질문에서도 단순히 ‘언제’(when)가 아니라 ‘어느 시점’(at what point)이라고 질문의 범위를 좁힘으로서 진행자의 질문은 훨씬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게 되고 더 간절해진다.

### 3. 모호한 표현 사용

Paltridge(2006: 63)에서는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이혼 후의 BBC 파노라마 인터뷰에서 왕실 사람들(the royal household)을 가리켜 ‘내 주위 사람들’(people around me), ‘이곳 사람들’(people in this environment), ‘내 주변 사람들’(people in my environment)이라고 애둘러 지칭한 부분을 언급한다. 당시 인터뷰를 보게 될 청중들은 다이애나 비가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지 이미 암묵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다이애나 비의 입장에서는 특정 지칭을 모호한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왕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면서도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모호한 표현(vague expression)을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모호한 표현 사용이 직접적 표현으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Jucker et al. 2003). 화자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에는 무언가를 암시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크쇼에서도 이와 같이 특정한 지칭을 회피하고 ‘사람들, 그들, 그, 그녀’(people, they, he, she)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진행자와 초대 손님은 모호한 표현의 사용을 통해서 자신이 언급하기 힘든 상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며, 청중은 대화의 상황으로 미루어 그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진행자는 질문에 언급되는 특정 대상을 인칭 대명사, 부정 대명사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칭함으로써 질문의 공격성을 약화시키거나 자신의 질문에 대한 책임을 다소 회피하려는 의도를 보

인다. 예를 들면, 특정대상이 처음 소개됨에도 불구하고 대명사를 사용하여 질문을 하게 되면 진행자와 초대 손님 모두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게 된다. 이러한 대명사 사용을 통해 진행자는 직접 대상을 언급하지 않고도 본인이 진행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대화는 2012년 ABC에서 방영된 더 뷰(*The View*)라는 토크쇼에서 여러 명의 진행자들이 초대 손님 토미 리 존스(Tommy Lee Jones), 메릴 스트립(Meryl Streep)과 나눈 대화이다. (7)에 제시된 대화에서 토미 리 존스를 제외한 모든 출연진이 여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자가 던진 ‘남자들이 오르가즘 느끼는 척 하는 것은 어렵죠, 안 그래요?’(Well, it’s hard for a man to fake an orgasm, isn’t it?)라는 질문에 언급된 주어로서 ‘남자’(a man)를 사용한 것은 진행자의 특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7) The View

진행자(H): 베티 미들러,

초대 손님 1 (G1): 메릴 스트립, 초대 손님 2 (G2): 토미 리 존스

H: We’re back with Meryl Streep and Tommy Lee Jones who star in the new movie Hope Springs. That was the very funny and talented Steve Carrell. You know Meryl, in this movie you had to fake an orgasm, and I was wondering did you do that when you played Julia Child also? Ha ha hah...

G1: Ha ha ha ha...I do it all the time. Ha ha ha...

(Audience laugh)

G1: No, ah... yes... yeah that was a...

H: Did you have to do it any in any other movie, really?

G1: No, I’m, uh, trying to think... yeah, yeah, lot’s of ‘em, they always

H: Sophie’s Choice, maybe?

G1: They always want the women to do that, you know?

H: → **Well, it’s hard for a man to fake an orgasm,** isn’t it?

G1: No.

H: Tommy?

G2: Mm?

(Audience laugh)

H: Ha ha ha

G2: I, I... don't know, I... I've never tried

(Audience laugh)

H: Ha ha ha

진행자는 초대 손님이 두 명인 상황에서 마치 불특정한 인물에게 하는 것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토크쇼에 출연한 남자가 토미 리 존스 한 명 뿐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질문은 남성 초대 손님 한 명만을 겨냥한 것이 된다. 즉, 진행자는 모호한 표현의 사용을 통해 곤란한 질문을 특정인에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이면서도 여전히 초대 손님에게 질문에 대한 응답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손님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질문에 대해서 진행자가 겨냥한 초대 손님 2가 아닌 여성 초대 손님 1이 ‘아니오’(No)라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민감한 질문임을 감지한 초대 손님 1이 질문에 사용된 모호한 표현을 (의도적이든 아니든) 무시하고 응답함으로써 초대 손님 2가 민감한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7)의 대화에서는 비지정 화자(non-selected speaker)의 응답 이후 진행자가 다시 초대 손님 2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다음 화자를 지정하고<sup>6)</sup> 여전히 초대 손님 2는 응답을 회피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I, I... don't know, I... I've never tried)라는 답변은 결국 진행자의 질문의도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고 보인다.

(8)에 제시된 대화는 앞서 (2)에서 제시된 대화와 동일한 토크쇼의 일부분이며, 진행자인 데이비드 레터맨과 초대 손님 엠마 스톤이 초대 손님의 영화 홍보일정을 주제로 나눈 대화 내용 일부이다. 아래에 제시된 대화에서 진행자는 초대 손님의 영화 홍보 일정이 너무 빠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초대 손님이 소속된 회사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6) 3명 이상이 대화를 진행하는 경우, 질문에 대한 응답은 질문자가 지정된 화자(selected-speaker)의 응답이 비(非)지정 화자(non-selected speaker)의 응답보다 더 선호 된다(Hayano 2012).

(8) The Late Show

진행자(H): 데이비드 레터맨, 초대 손님(G): 엠마 스톤

H: Now, I've a... How have you been? Is summer going all right?

G: (Gibberish) summer's pretty good

H: (interrupting) you have to travel around promoting these movies.

G: Yeah, we've been... in... nine countries in the past 2 weeks.

H: Woah.

G: Yeah.

H: → And do, do, do, do **they** make you do that? (hand gesture to emphasize make)

G: (Facial expressions implying it's a delicate issue) I don't know that they like to, ah, be, have it referred to as "make you do it".

H: Mm-hm. Right.

G: But yeah, they make you do it.

H: They make you do it.

G: Yeah.

초대 손님이 영화 홍보를 위해 다소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 진행자는 이러한 상황이 초대 손님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그가 소속된 '회사'가 소속 연예인의 일정을 무리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진행자는 직접적으로 '당신의 회사'라는 특정 대상을 직접 밝히기 보다는 이를 '그들'(they)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모호한 표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대화 참여자들이 지칭 대상을 상호 확인하지 않은 채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행자의 질문에서 공격의 대상을 추상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면서도 초대 손님이 보다 질문에 대답하기 쉽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초대 손님도 계속해서 '그들(they)'라는 모호한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 모호한 표현의 사용이 곤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사용되는 책략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4. 주제 좁혀나가기

진행자가 곤란하거나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 중의 하나로서 주제 좁혀나가기를 들 수 있는데, 즉, 진행자는 어떤 다른 주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혹은 그 해당 주제와 연관은 되지만 간접적이고 훨씬 범위가 넓은 주변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점 해당 주제로 이야기를 좁혀나가는 (narrowing-down)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초대 손님은 처음에는 진행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후에 나올 질문을 예측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주제로 이야기가 이어지기 전에 주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도 어려워진다.

다음 (9)에 제시된 대화는 2012년 NBC에서 방영된 엘렌 드제너러스 쇼 (The Ellen DeGeneres Show)에서 진행자인 엘렌 드제너러스가 초대 손님으로 나온 앤드류 가필드(Andrew Garfield)를 인터뷰 한 내용이다. 해당 대화에서 진행자는 초대 손님과 다른 배우인 엠마 스톤(Emma Stone)과의 열애설에 대한 내용을 묻고자 한다.

(9) The Ellen DeGeneres Show

진행자(H): 엘렌 드제너러스, 초대 손님(G): 앤드류 가필드

H: → So you're making, uh, you've already started on the, the, the next.

G: February, we start, the next one.

H: yes

G: We started preproduction, we have a script and it's very very good.

H: Oh good, well that's important.

G: Which is, which is kind of, yeah, you need that, otherwise...

H: Yeah, you don't wanna just do it, because it was successful. That... that,

G: Precisely, yeah

H: → So, and your co-star in the movie was, what's her name? Emma Stone?

G: Denis Lea... oh, yeah. Denis Leary.

H: Denis Leary?

(Audience laugh)

H: Do y'all keep in touch?

G: Yeah, yeah...

H: Yeah?

G: Me and Denis are, uh, we moved in together recently, and, um...  
(shakes head) we uh... we're having... yeah, w-w-w... It's weird,  
'cause I'm with his family as well, and

H: Yeah.

G: It's kind of an... kind of like a...

H: Oh, that's not... we have the wrong picture. That's not, that's not Denis.

G: That's not Denis Leary.

H: That's not Denis Leary. So y'all keep...

G: Oh no, that's Emma, Emma. Emma was in the movie.

H: → Yeah, and **you all keep in touch? She's doin' okay?**

G: I... I... I... hear that she's fine.

H: Ha, aye, aye, aye, mate... uhm...

G: (laughs heartily)

진행자는 맨 처음 ‘그래서, 당신이 요즘 만들고, 어, 이미 시작했죠, 다음’(So you're making, uh, you've already started on the, the, the next)이라며 초대 손님이 출연한 영화 전반에 대한 언급으로 주제를 시작한다. 이후 진행자는 ‘그래서, 그리고 당신이 함께 영화에 출연한, 그녀의 이름이 뭐였죠’(So, and your co-star in the movie was, what's her name?)라고 점차 그 범위를 같이 출연했던 여자 배우로 좁혀가며, 초대 손님은 이 과정에서 진행자의 의도대로 대답을 이어가게 된다. 또한 이미 진행자는 진행자와 초대 손님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질문을 통해 초대 손님에게 확인하도록 만듦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진행자가 아닌 초대 손님이 해당 주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효과도 가져온다. 이후 초대 손님이 다른 방향으로 주제를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진행자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즉, 진행자는 ‘서로 다들 연락하고 지내죠? 그녀는 잘 지내고 있나요?’(you all keep in touch? She's doin' okay?)라는 복합질문(multiple

questions)<sup>7)</sup>을 통해 열애설이 난 당사자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 여부를 묻고 난 후 그 대답을 기다리기 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후속 질문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10)의 대화는 보다 긴 질문-대화 연속체에서 진행자가 다양한 질문 전략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예를 보여준다. 해당 대화 역시 (2), (8)의 대화와 동일한 토크쇼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다.

(10) The Late Show

진행자(H): 데이비드 레터맨, 초대 손님(G): 엠마 스톤

H: → Ah, we had somebody on here the other day who was a, in the, a Spiderman movie and gosh I enjoyed the Spiderman movie.

G: I'm so glad.

H: And, and I'll tell you something normally, I don't like movies where I know in my heart, eh, stuff can't happen.

G: Yeah.

H: (hand gesture) I know, I know, there's no Spiderman. I know that. (Bigger hand gesture) I know that can't happen.

G: Shhhhhhh... (suspicious look)

H: → I know. But I really enjoyed the Spiderman. And, and, I, I'll tell you what, I think it was... uh...of course you, and th, this is a different Spiderman, this first time he's been a Spiderman,

G: Yeah

H: → And he's tremendous this guy, what's his, what's his name?

G: Andrew Garfield.

H: And you get to play his a... a... girlfriend.

G: Yes, I do.

---

7) 복합질문(multiple questions)이란 두 개 이상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Linke 1985:200, Penz(1996)에서 재인용).

(i)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른 양상을 다루는 질문들로서 이러한 질문이 요구하는 응답의 성격은 상이한 초점에 대한 것이다.

(ii) 내용은 긴밀히 연관이 되나 첫 번째 질문은 좀 더 개방형이고 일반적인 성격인데 반하여 후속질문들은 구조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좀 더 제한된 응답을 요구하는 성격의 것이다.

- H: And you're also the son of the chief of police or the, the head, the cop..guy chasing Spiderman.
- G: Yeah
- H: → And he doesn't know it, and then, and then there's a romance between a... have you ever dated a Spiderman?
- G: (just looking up the ceiling)
- H: Now, now the horn section, now this question doesn't apply. (chuckles)  
For the love of God.
- G: Then yes. Yes I have.
- H: But somebody told me that in addition to dating the Spiderman in the movie... there may be real life overlap there.
- G: (distracting the question) The horn section told you?
- H: (while laughing) Yes. The horn section told me. That's right. They said. They said we think there might be some real life overlap. The horn,
- G: Have, have you heard that we're having a clam bake?
- H: Now, how do you guys know this? Have you been to a clam bake?
- G: Have you? They've been to a clam bake. This is, you guys are the best.
- H: Oh, my God.
- G: Just the best.
- H: I feel like I've been traveling the world. Uh... Let's a, a, do you know the scene we are gonna see here?

진행자가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의 여자 친구 역으로 출연했던 초대 손님이 스파이더맨 역을 맡았던 앤드류 가필드와 실제 연애중이라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진행자는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열애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 토크쇼에 나왔던 사람이 있는데,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전 스파이더맨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we had somebody on here the other day who was a, in the, a Spiderman movie and gosh I enjoyed the Spiderman movie)라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주제를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 진행자는 앤드류 가필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인 '누군가'(somebody)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에 주제를 진행해나가면서 점



차 이야기의 초점을 영화의 남자 주인공으로 좁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진행자가 의도적으로 본인과 초대 손님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연속적인 질문-응답 형식을 통해 이야기함으로써 서서히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며 이는 진행자가 구체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체화 전략과 함께 계속해서 해당 남자주인공을 ‘그’(he)라고 언급함으로써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이후 진행자가 ‘그 사람 이름이 뭐죠?’(What’s his name?)라고 질문한 후 초대 손님이 앤드류 가필드의 이름을 이야기함으로써 초대 손님으로 하여금 그 대상을 밝히게 만들고 이로 인해 해당 주제가 마치 진행자가 아닌 초대 손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또한 진행자는 이후 열애설에 대한 추가 질문에서도 ‘앤드류 가필드와 사귀고 있나요?’가 아닌 ‘스파이더맨과 사귀고 있나요?’(Have you ever dated a Spiderman?)라고 질문함으로써 질문의 의도를 다소 모호하게 만들고 이에 대한 초대 손님의 질문도 중의적 의미를 띠게 만든다. 이에 대한 초대 손님의 응답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진행자의 이야기에 짧게 응답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하는 상황을 피하고 있다. 또한, 초대 손님은 ‘스파이더맨과 사귀고 있나요?’(Have you ever dated a Spiderman?)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단정을 피우며 응답을 회피하고, ‘호른 섹션이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The horn section told you?)라며 주의를 제 3자에게로 돌리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토크쇼 진행자는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초대 손님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청중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청중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한다. 첫째, 진행자는 곤란하거나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제 3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러한 질문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닌 중립적이며 공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 제시한다. 둘째,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이나 당연히 그러하다는 사실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하여 초대 손님은 답변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그 전제로 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주도록 유도한다. 셋째, 진행자는 질문에 언급되는 특정 대상을 간접적으로 모호하게 지칭함으로써 질문의 공격성을 약화시키거나 자신의 질문에 대한 책임을 다소 회피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넷째,

진행자는 어떤 다른 주제나 혹은 그 해당하는 곤란한 주제와 연관은 되지만 간접적이고 훨씬 범위가 넓은 주변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점 해당 주제로 이야기를 좁혀나가는 구체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 IV. 결론 및 논의

토크쇼는 진행자와 초대 손님 간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와 같다. 진행자는 시청자의 대변인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려 하는 동시에 시청자를 위해 초대 손님이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은 부분까지 파고 들어간다. 동시에 초대 손님은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추기 위해 민감하거나 곤란한 주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도 동시에 주제가 시작된 경우 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미지 손상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대화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토크쇼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줄을 당기기도 하고 줄에 끌려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줄다리기 속에서 나타나는 질문자의 질문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토크쇼에서 진행자는 곤란하거나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 3자의 진술인용, 전제가 포함된 질문, 모호한 표현 사용, 주제 좁혀가기라는 네 가지의 질문 전략들이 특히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기존에 주로 연구되었던 TV 담화의 유형인 뉴스 인터뷰에서 벗어나 TV 토크쇼에서 나타나는 담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며,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보다 적은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데에 비해 본 연구는 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총 34편, 약 760분)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한편으로는 본 연구가 가진 질적 연구 방식의 한계로 인해 보다 수치화된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전략들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며 일상 대화와 비교하였을 때 그 빈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등을 연구해보면 보다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나아가 향후에는 TV 토크쇼라는 제도적인 담화에서 나타나는 진행

자의 전략과 일상 대화에서 나타나는 전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차이가 관찰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역시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또한 대화라는 것은 발생하는 환경, 대화 참여자들의 특성 및 감정, 시간적인 배경, 대화가 추구하는 목표 등에 따라서 같은 일상 대화 또는 제도적 담화라도 그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토크쇼 역시 마련된 설정, 토크쇼가 추구하는 목적, 진행자와 초대 손님 특성, 토크쇼의 주요 시청자 층에 따라 그 형식과 특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형식의 토크쇼들을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흥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인 용 문 헌

- 서경희, 오나연, 오영림. 「TV 토크쇼에서의 담화전략」 담화인지언어학회 사회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203-213.
- Boyd, E. & J. Heritage. "Taking the Patient's Medical History: Questioning During Comprehensive History Taking." *Communication in Medical Care: Interactions between Primary Care Physicians and Patients*. Ed. J. Heritage & D. Maynard. Cambridge: Cambridge UP, 2006. 151-84.
- Clayman, S. & J. Heritage. *The News Interview: Journalists and Public Figures on the Air*. Cambridge: Cambridge UP, 2002.
- Crawford, M. *Talking Difference*. London: Sage, 1995.
- Du Bois, J. "Stance & Consequence."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New Orleans, 2002.
- \_\_\_\_\_. "Stance and Intersubjectivity." Paper presented at the *Stance Taking in Discourse: Subjectivity in Interaction* symposium at Rice University. Houston, TX, 2004.
- Ervin-Tripp, S., M. O'Connor, & J. Rosenberg. "Language and Power in the Family." *Language and power*. Ed. M. Schulz & C. Kramer. Belmont, CA: Sage, 1984.
- Fowler, R. "Power."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Ed. T. van Dijk. London: Academic Press, 1985.
- Freed, A. & S. Ehrlich. "Why Do You Ask?" *The Function of Questions in Institutional Discourse*. Ed. A. Freed & S. Ehrlich. Oxford: Oxford UP, 2010.
- Glucksberg, S. & M. McCloskey. "Decisions about Ignorance: Knowing That You Don't Know."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Learning and Memory* 7.5 (1981): 311-25.
- Gregori-Signes, C. "The Tabloid Talkshow as a Quasi-Conversational

- Type of Face-to-Face Interaction.” *Pragmatics* 10.2 (2000): 195–213.
- Haddington, P. “Stance Taking in News Interviews.” *SKY Journal of Linguistics* 17 (2004): 101–42.
- Hayano, K. “Question Design in Conversation.” *The Handbook of Conversation Analysis*. Ed. J. Sidnell & T. Stivers. Oxford: Wiley–Blackwell, 2012.
- Heritage, J. “Conversation Analysis and Institutional Talk.” *Handbook of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Ed. R. Sanders & K. Fitch. Mahwah, NJ: Erlbaum, 2004. 103–46.
- \_\_\_\_\_. “Questioning in Medicine.” *“Why Do You Ask?”: The Function of Questions in Institutional Discourse*. Ed. A. Freed & S. Ehrlich. New York: Oxford UP, 2010. 42–68.
- Heritage, J., & S. Clayman. “Question Design in the News Interview and Beyond.” *Talk in Action: Interactions, Identities, and Institutions*. Ed. J. Heritage & S. Clayman. New York: John Wiley, 2010. 227–44.
- Ilie, C. “Question–Response Argumentation in Talk Shows” *Journal of Pragmatics* 31.8 (1999): 975–99.
- Jucker, A., S. Smith, and T. Lodge. “Interactive Aspects of Vagueness in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35 (2003): 1737–69.
- Lee, J. “Delicate Questioning Practices in Broadcast Talk.” *Language Research* 49.3 (2014): 759–79.
- Linke, A. “Gespräche im Fernsehen.” *Eine diskursanalytische Untersuchung*. Bern: Verlag Peter Lang, 1985.
- Paltridge, B. *Discourse Analysis: An Introduction*. New York: Continuum, 2006.
- Penz, H. *Language and Control in American TV Talk Shows: An Analysis of Linguistic Strategies*.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1996.

- Singer, M. "Answering Questions about Discourse." *Discourse Processes* 13.3 (1990): 261-77.
- Stivers, T. "An Overview of the Question-response System in American English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42.10 (2010): 2772-81.
- Tolson, A. *Media Talk: Spoken Discourse on TV and Radio*. Edinburgh: Edinburgh UP, 2006.

## 부 록

계류	진행자(성별)	초대손님(성별)		
Live with Kelly	Kelly Ripa (F), Michael Strahan (M)	Anne Hathaway (F)		
		Nicki Minaj (F)		
		Mitt (M) and Ann Romney (F)		
		Emily Maynard (F), Jef Holm (M)		
		Jessica Alba (F)		
		Tyra Banks (F)		
		Melanie Amaro (F)		
		Nathan Fillion (M)		
		Tony Goldwyn (M)		
		Jessica Simpson (F)		
The Ellen DeGeneres Show	Ellen DeGeneres (F)	Taylor Swift (F)		
		President Obama (M)		
		Keira Knightley (F)		
		Lady Gaga (F)		
		Robert Pattinson (M)		
		The Bully Chat (M)		
		Facebook (M)		
		Michelle Obama (F)		
		Andrew Garfield (M)		
		Emma Stone (F)		
		Kelly Clarkson (F)		
		The View	Whoopi Goldberg, Joy Behar, Elisabeth Hasselbeck, Sherri Shepherd, Barbara Walters (all female)	Meryl Streep (F), Tommy Lee Jones (M)
				Andrew Garfield (M)
Angelina Jolie (F)				
Emma Stone (F)				
Justin Bieber (M)				
Late Show	David Letterman (M)	Kaley Cuoco (F)		
		Robert Downey Jr. (M)		
		James Lipton (M)		
		Hugh Laurie (M)		
		The Tonight Show	Jay Leno (M)	Arnold Schwarzenegger (M)
Tom Cruise (M), Cameron Diaz (F)				
Justin Bieber (M)				
Cameron Diaz (F)				
Michael Moore (M)				

Abstract

## **Discourse Strategies of Hosts with Bald Faced Questions in TV Talk Shows**

Suh, Kyung-Hee · Oh, Na-Yeon · Oh, Yeong-lim

Interactions in TV talk shows have some characteristics driven by both semi-institutional and institutional conversations. The former is the case that TV talk shows seemingly follow conversations in daily routines. For the latter, the basic setting of a TV talk show assumes or assigns specific roles of host or guest to each participant. Unlike daily conversation, institutional discourse in mass media, especially for talk show conversations, has one ultimate goal: infotainment (Penz 1996:1).

Interviewers or talk show hosts keep seeking information from guests for the sake of the audience's and viewers' entertainment. This paper focuses on TV talk shows with celebrities as guests to observe what kind of strategies hosts implement in their questions to obtain information that stimulates the curiosity of viewers and satisfies their interest in the private lives of celebriti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veal that hosts in TV talk shows utilize different questioning strategies, which can be divided into four major categories: third-party reported speech, presuppositions, vague expressions and topic narrowing-down. By citing or quoting third-party reported speech, the question initiated by a host is justified and neutralized. Presupposition and vague expression are both useful tools that



allow the host to initiate topics about sensitive issues while avoiding any direct mention of the issue. Topic narrowing-down has an effect of distracting the guest from the intended topic and making a detour to the topic. Hosts not only use one of these strategies to achieve the goals of their questions but also make questions more dynamic by employing different types of strategies simultaneously.

**Key Words:** TV talk shows, infotainment, discourse strategies, bald-faced question, question strategies

텔레비전 토크쇼, 인포테인먼트, 담화전략, 민감한 질문하기, 서문이 있는 질문

논문접수일: 2014.11.15

심사완료일: 2014.12.19

게재확정일: 2014.12.23

이름: 서경희 (제1저자)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 130-791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이메일: khsuh@hufs.ac.kr

이름: 오나연 (교신저자)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 130-791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메일: etbea@naver.com

이름: 오영림 (교신저자)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 132-787 서울시 도봉구 창동 덕릉로66길 17 1711동 806호

(주공17단지아파트)

이메일: oh.ylim@gmail.com